

### 3. 응시자격

-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나.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영주시에 두고 나이가 만 19세 이상이고 60세 이하인 자
-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사람
- 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사 무 국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중 자원봉사관련 기관·단체에서 <u>5년</u>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li> <li>○ 자원봉사관련 기관·단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li> <li>○ 사회복지사(2급 이상) 자격증을 보유하고 최근 2년간(공고일 기준) <u>100시간 이상</u>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li> </ul>

### 3. 응시자격

-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나.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상북도 내에 두고 나이가 만 19세 이상이고 60세 이하인 자
-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사람
- 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사 무 국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중 자원봉사관련 기관·단체에서 <u>3년</u>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li> <li>○ 자원봉사관련 기관·단체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li> <li>○ 사회복지사(2급 이상) 자격증을 보유하고 최근 2년간(공고일 기준) <u>50시간 이상</u>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li> </ul>

사무국장 채용에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의 공고문을 보시면 응시자격과 경력사항,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대하여 수정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채용공고 후 사무국장 직책에 대하여 극소수인 단 1명의 지원자가 있었을 뿐입니다.

당시 지원자는 사무국장의 급여가 바람직하지 않게 경력에 비해 적게 책정되어 있다는 건의를 하셨으며, 채용 급여조건이 맞지 않아 응시를 중도에 포기하셨습니다.

센터가 생각하는 사무국장이란 직책은 영주지역에 대한 무한 애정과 자원봉사자를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진정성이 있어야하는 직책으로 생각되어 영주지역으로 한정하여 채용공고를 했지만 지원자가 극소수인 1명이었으며,

해를 바꾸어, 2020년으로 채용공고에서는 자격기준이 너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그 기준을 낮추고 더 넓은 지역에서 숨어있는 바람직한 인재를 채용해 보려고 응시자격과 자격기준을 낮추어서 수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낮추고 새로이 공고했었지만 두 번째 채용공고에는 단 1명의 지원자도 없었던 바 정상운영이 시급한 센터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영주시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걱정하는 귀 단체의 지역사랑의 충정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영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회와 심도있게 협의하여 더욱 훌륭한 인재가 자원봉사센터 내 실무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채용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질문 내용 중에

지원자 중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자”가 지원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러한 정보를 미리 알 수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본인이 직접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알아 낼 방법이 없으며,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다루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가 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누구든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가 아니라면, 설사 기소 중이라고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응시를 원하는 자를 “공무를 수행할 책임자가 아니다.”라고 제한을 할 수가 없으며 막을 방도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을 지라도

영주시자원봉사센터는 보다 공정하고 평화로운 지역사회를 열어가기 위하여 수많은 우리 지역자원봉사자 그리고 영주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와 사랑을 받는 자원봉사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직은 여러모로 부족하고 미숙해서 건강한 의구심이 생기도록 했었기에 그 점은 오로지 센터를 이끌어 나감에 있어 의욕만 앞세웠던 센터장인 저의 지혜가 많이 부족했었다고 사과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보다나은 영주시자원봉사센터가 되도록 적극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과 승승장구를 기원합니다.